

귀주성 국제투자무역 설명회 참가

- 조영삼 연구위원(중소벤처기업연구실)

1. 출장 일정

- 출장기간: 2012년 6월 25일~27일(2박 3일)
- 출장 지역: 중국 귀주성 옹안현
- 주요 일정

일자	시간	내용	비고
6/25		북경-귀양 이동, 귀양-옹안현 이동, 환영만찬	
6/26	오전	투자무역설명회	
	오후	옹안현 공업원구 시찰, 옹안현-귀양 이동	
6/27		귀양-북경 이동	

2. 주요 출장 결과

- 투자무역설명회

○ 일시 : 2012년 6월 26일 오전 9시 ~ 11시 30분

○ 참가자

- 귀주성 및 옹안현 관계자 : 귀주성 반정농 정협부주석, 귀주성 투자촉진국 유경유 부국장, 귀주성 손등봉 상무부청장, 금남주 황가배 서기, 금남주 향홍경 주장, 옹안현 진창욱 서기, 옹안현 윤현준 현장 등
- 중국 여타기관, 외국기업 및 기관 :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장위 부회장, 일본 왕자제지 이리쿠라 카주오 중국 사장, 미국 Luistone 그룹 진풍령 경제협조관, 강소성 명달광업투자공사 진조민 부총재, 중국 Eco-Greenland 소존당 사장, 중국 중남천성투자 한평 이사장 등

○ 주요 내용

- 귀주성 옹안현 및 인근 주요 지역 투자환경 및 중점 투자항목을 설명하고 중국 여타지역 및 외국 투자가들의 질의에 응답
- 교류회를 통해 20여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향서 체결

□ 옹안현 공업원구 시찰

○ 일시 : 2012년 6월 26일 오후 2시 ~ 5시

○ 주요 내용

- 귀주성 옹안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원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
-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자원 개발, 친환경농업, 관광 등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, 양호한 성과를 통해 귀주성 내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
- 최근 중국 1급 성시의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옹안현에서는 옹안현 출신 농민공들의 귀향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단지 건설을 추진

3. 시사점

- 귀주성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며, 많은 산지와 내륙 등 지형조건이 산업화 입지에 불리한 여건
- 그러나 석탄, 인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관심이 증대하는 한편, 풍부한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
- 또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낙후된 도로·운송망 건설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2~3년 이후에는 지리적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
- 후발 개발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방정부는 원스톱-밀착형 투자지원 서비스체제를 구축
 - 기투자기업의 경험에 따르면 투자 인가에서 실제 영업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신속하다는 평가
- 중국의 투자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투자 여건상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일부 낙후지역, 후발 산업화 지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